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6년 12월
J Korean Soc Sch Health Vol. 29 No. 3, 180-188, December 2016
p-ISSN 1225-9608 | e-ISSN 2288-9957
http://dx.doi.org/10.15434/kssh.2016.29.3.180

여자 중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신기수[1] · 조미경[2]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1], 을지대학교 간호대학[2]

Influencing Factor on Self-control by Usage Motivation of SNS among Middle School Female Students

Gisoo Shin[1] · Mi-Kyoung Cho[2]

[1]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ivations to use social media and self-control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To collect the data, 300 female students of S and E middle school in S city responded to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sking about their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and self-control.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time spent on social media was 3.70 hours. The mean scores of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and self-control were 48.15 and 58.47, respectively. The more average time spent on social media, the higher was the motivation to use social media. The scores of motivation to use social media were higher in students with low satisfaction of their school and family life. Students with low satisfaction of their school life had higher scores in some subcategories of self-control; preference to simple task, egocentrism, and stroppiness. Motivations to use social media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control. Self-control was affected by motivations to use social media and this variable explained 11.6% of self-control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e should develop programs which help improve students' self-control and prevent the side effects of social media use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s,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Self-control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매일 아침 우리는 스마트폰의 알람으로 기상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그날의 날씨를 체크하며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이어간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로서 2007년 애플사에서 아이팟,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합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일상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1].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7억 7천만 이상

Corresponding author: Mi-Kyoung Cho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55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 13135, Korea.
Tel: +82-31-740-7415, Fax: +82-31-740-7415, E-mail: ciamkcho@eulji.ac.kr

- 이 논문(저서, 예술연구)은 2015학년도 을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Eulji University in 2015.

Received: Jul 4, 2016 / Revised: Dec 2, 2016 / Accepted: Dec 13,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채팅방을 통해서 하루에 약 5억건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2]. SNS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SNS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 유지, 강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SNS의 장점은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빠르게 정보를 교환 할 수 있어서 여론형성 또는 마케팅 전략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3]. 그러나 SNS의 장점과 달리 SNS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누출 및 악용, 정보의 신뢰성 하락, 가상인맥에 대한 집착 또는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4]. 이중 SNS에서의 괴롭힘은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라는 신종어를 만들었으며 SNS의 대표적 역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 혹은 권익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의 특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동시에 다수가 목격할 수 있으며 '전달하기'와 '추천하기'와 같은 SNS의 리트윗 기능을 통해 예측 불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21세기의 폭력으로 지칭되고 있다[5,6].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큰 연령층은 청소년들로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부적응, 우울 등을 비롯하여 성인들에 비해 쉽게 자살로 이어짐이 보고되고 있다.[7] 사이버불링에 대한 피해는 국내외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8,9], 이러한 사이버불링은 SNS의 이용동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10]. SNS 이용시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상태에서 화, 우울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 원인이라고 일반긴장이론[11]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즉, 학대, 범죄피해 또래괴롭힘, 체벌 등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감과 좌절감을 겪게 하여 가해를 하는 범죄유발적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다[12]. 하지만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처방식이 존재한다면 SNS 이용의 역기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긴장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성향에 의하여 비행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이 갖고 있는 개인 성향 중에서 자기통제력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이에 본 연구는 SNS 역기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 SNS 역기능을 중재하는 간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와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자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여자 중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 정도를 파악한다.
- 여자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여자 중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여자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 S시에 위치한 S와 E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하였고, 제외기준은 자료수집기간동안 결석자,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자, 소셜 밴드, 페이스북, 라인이나 카카오톡 등의 SN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중재 프로그램이나 SNS를 이용하여 학습피드백을 주는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의 SNS이용이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산정 근거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14,15]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인 .2, 검정력

.9로 계산하였을 때 255명이었다. 산출된 대상자수에서 탈락률을 15%로 계산하였을 때 300명이었다. 2개 중학교에 나누어서 300부를 배부하였고, 배부한 설문지가 모두 회수되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SNS 이용동기

SNS 이용동기란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16]. 본 연구에서는 Jung [17]이 SNS 이용자의 이용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대인관계형성 6문항, 현실회피 6문항, 정보획득 5문항, 오락성 3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SNS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SNS 이용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대인관계형성 Cronbach's α는 .76, 현실회피 Cronbach's α는 .84, 정보획득 Cronbach's α는 .74, 오락성 Cronbach's α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대인관계형성 Cronbach's α는 .82, 현실회피 Cronbach's α는 .89, 정보획득 Cronbach's α는 .82, 오락성 Cronbach's α는 .82였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범죄행위를 회피하는 차등적인 경향이자 순간적인 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18]. 본 연구에서는 Grasmick 등[19]이 개발한 척도를 Ha와 Kim [2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충동성 4문항, 단순과제 4문항, 모험추구 4문항, 신체활동 4문항, 자기중심 4문항, 화기질 4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점의 5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 범위는 24점에서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였고, 자료수집 전에 E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EUIRB2015-46)를 득하였다. 자료수집은 본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경기도 S시의 남녀공학 1개교와 여자중학교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전에 2개 학교 행정실로 연락하여 학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이용에 대해 설명하여 허락을 득한 후, 학교로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동의서와 설명서를 보냈다. 학교의 시간표상 적합한 시간에 연구자가 학급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참여대상, 연구방법과 연구참여기간, 연구참여 중 중도탈락, 개인정보와 비밀보장을 설명하였고 학생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연구참여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2개교의 총 재학생은 500여명이었고, 연구설문 작성의 제외기준으로 SNS이용이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설문을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학부모 동의서를 가져온 학생들은 학생자신의 동의서와 함께 설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1.0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SNS 이용동기, 자기통제력은 정규성 검정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왜도와 첨도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두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 independent t-test로, 세 집단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onw way ANOVA로,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SNS 이용동기, 자기통제력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여자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stepwise)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p<.05$에서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1. 여자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학년별로 3학년이 126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은 보통정도가 234명(7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이 나쁘다

고 응답한 학생이 28명(9.3%)이었다. 가정생활 만족정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27명(75.7%), 불만족이 14명(4.7%)이었고, 학교생활 만족정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91명(63.7%), 불만족이 18명(6.0%)이었다. SNS 이용시간은 평균 3.70±2.16시간이었고, 3시간 이상 이용자가 206명(68.7%)으로 3시간 미만보다 많았다(Table 1).

2.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의 정도

SNS 이용동기의 평균 총점은 48.15±16.44 (범위: 20~92, 왜도: 0.14, 첨도: -0.65)점이었고, 자기통제력의 평균 총점은 58.47±14.83 (범위: 6~116, 왜도: -0.20, 첨도: 0.68)점이었다. 연구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로 분석하였고, 각 변수의 평균은 1개로 단일봉, 왜도와 첨도는 -2.0~2.0사이에 분포하였으므로 본 연구변수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Table 2).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에서는 정보획득이 14.56±5.18점이었고 오락성이 9.40±3.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기통제력의 하위영역에서는 신체활동선호가 11.43±4.90점, 단순과제선호가 11.41±3.82점이었고, 자기중심성이 7.92±3.2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점 만점으로 환산 시에도 각 하위영역의 총점과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선호가 2.86±1.23점, 단순과제선호가 2.85±0.95점으로 다른 하위항목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자기중심성이 1.98±0.81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rade (year)	1st	102 (34.0)
	2nd	72 (24.0)
	3rd	126 (42.0)
Academic Record	Good	38 (12.7)
	Average	234 (78.0)
	Bad	28 (9.3)
Satisfaction of family life †	Good	227 (75.7)
	Average	58 (19.3)
	Bad	14 (4.7)
Satisfaction of school life †	Good	191 (63.7)
	Average	89 (29.7)
	Bad	18 (6.0)
Average social media time (hour) †	<3	89 (29.7)
	≥3	206 (68.7)
		3.70±2.16

† Missing.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의 차이

여자 중학생의 특성에 따른 SNS 이용동기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은 학생들이 정보획득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고(F=6.40, p=.002), 가정생활(F=6.66, p=.001)과 학교생활(F=7.93, p<.001)에 만족하는 학생보다 불만족하는 학생이 현실회피 영역에서 SNS 이용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SNS 이용동기는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SNS를 이용한 학생들이 3시간 미만으로 SNS를 이용한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 p=.011). SNS 이용시간에 따른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에서는 정보획득 영역(t=-2.22, p=.027)과 오락성 영역(t=-3.82, p<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and Self-control (*N*=300)

Variables	M±SD	Range (Min~Max)	Skewness	Kurtosis	Reduced to five points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48.15±16.44	20~92	0.14	-0.65	2.41
Interpersonal relations	11.20±4.81	6~26			1.87
Evasion of reality	12.99±6.34	6~30			2.17
Acquisition of information	14.56±5.18	5~25			2.91
Entertainment	9.40±3.57	3~15			3.13
Self-control	58.47±14.83	6~116	-0.20	0.68	2.44
Recognition of impulsivity	9.84±3.04	4~19			2.46
Preference to simple task	11.41±3.82	0~20			2.85
Tendency to seeking adventure	8.91±3.49	0~20			2.23
Preference to physical activity	11.43±4.90	0~52			2.86
Egocentrism	7.92±3.25	0~18			1.98
Stroppiness	8.97±3.48	0~20			2.24

Table 3. Differences in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0)

Characteristics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Interpersonal relations		Evasion of reality		Acquisition of information		Entertainment		Sum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rade (year)	1st	10.90±4.64	1.46	13.32±7.06	1.95	14.02±5.45	1.22	9.06±3.91	1.27	47.30±18.07	0.42
	2nd	12.04±4.77	(.234)	13.92±6.25	(.145)	14.43±5.81	(.298)	9.22±3.52	(.283)	49.61±17.36	(.656)
	3rd	10.96±4.96		12.18±5.69		15.08±4.52		9.78±3.28		48.00±14.49	
Academic record	Good	11.18±4.84	0.01	13.34±5.65	0.13	16.71±4.59[a]	6.40	9.61±3.39	0.16	50.84±13.86	1.05
	Average	11.22±4.70	(.988)	12.98±6.48	(.878)	14.50±5.12[ab]	(.002)	9.40±3.49	(.855)	48.10±16.58	(.352)
	Bad	11.07±5.82		12.54±6.23		12.21±5.43[b]	(a > b)	9.11±4.42		44.93±18.34	
Satisfaction of family life †	Good	11.04±4.61	0.69	12.27±5.96[a]	6.66	14.70±5.01	1.24	9.49±3.55	0.50	47.51±15.83	0.61
	Average	11.86±5.63	(.504)	14.72±6.71[ab]	(.001)	14.38±5.62	(.292)	8.98±3.67	(.609)	49.95±18.53	(.544)
	Bad	10.93±4.63		17.00±8.27[b]	(a < b)	12.50±5.71		9.64±3.65		50.07±17.83	
Satisfaction of school life †	Good	11.15±4.55	0.30	12.28±6.10[a]	7.93	14.79±4.99	0.72	9.46±3.60	0.11	47.67±15.98	1.22
	Average	11.12±5.36	(.738)	13.35±6.18[a]	(< .001)	13.99±5.53	(.487)	9.28±3.59	(.893)	47.74±17.35	(.296)
	Bad	12.06±5.14		18.28±7.44[b]	(a < b)	14.44±5.38		9.46±3.60		53.94±16.94	
Average social media time (hour) †	< 3	10.67±4.85	-1.26	12.03±6.21	-1.76	13.56±5.40	-2.22	8.21±3.50	-3.82	44.48±16.38	-2.57
	≥ 3	11.44±4.81	(.210)	13.45±6.40	(.080)	15.00±4.96	(.027)	9.90±3.47	(< .001)	49.79±16.23	(.011)

† Post-Hoc: Scheffé test.

.001)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주된 SNS 이용은 정보획득영역과 오락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에 따라서 SNS 이용동기의 차이는 없었다(Table 3). 여자 중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력은 가정생활 만족정도에 따라 만족정도가 높은 학생들이 보통 이하인 학생들보다 자기통제력 점수가 높았고(F=5.74, p=.004), 학교생활 만족정도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생들보다 단순과제를 선호하였고(F=5.56, p=.004), 자기중심성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5.30, p=.005), 화기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60, p=.001). 그 외 여자 중학생의 특성 중 학년, 성적, SNS 이용시간에 따라서는 자기통제력 점수 차이는 없었다(Table 4).

4.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의 각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는 약한 정도에서 높은 정도의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5).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과 자기통제력의 하위영역에서는 자기통제력의 하위항목인 충동성인식, 단순과제선호, 화기질에서는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험추구성향에서는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 중 오락성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활동선호에서는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 중 정보획득(r=.12, p=.036)과 오락성(r=.13, p=.024) 만이 유의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중심성에서는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 중 정보획득을 제외하고 유의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여자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인 학년, 성적,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평균 인터넷사용시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SNS 이용동기는 연속변수로 진입하였으며, 단계적 다중회귀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여자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선택에서 변수진입의 및 제거 기준인 입력할 F확률 0.05 이하, 제거할 F확률 0.10 이상으로 일반적 특성변수는 모두 모델에서 제외되었고 SNS 이용동기만이 모델에 진입되어 여자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을 11.6% 설명하였다(F=39.13, p < .001).

논 의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SNS 이용의 일상화에 따른 변화는 많은 장점과 함께 문제점들 또한 우리사회에 가져다주기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의 SNS 이용현황[21]을 보면

Table 4. Differences in Self-control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0)

Characteristics		Self-control															
		Recognition of impulsivity		Preference to simple task		Tendency to seeking adventure		Preference to physical activity		Egocentrism		Stroppiness		Sum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rade (year)	1st	9.96±3.67	0.32	11.19±3.97	0.43	8.85±3.72	0.08	11.73±6.19	0.96	7.69±3.55	2.86	9.04±3.88	0.50	58.45±16.56	0.53
	2nd	9.96±2.87	(.726)	11.32±3.90	(.652)	9.06±3.54	(.923)	10.74±4.09	(.383)	7.36±2.84	(.059)	8.61±3.32	(.604)	57.04±14.62	(.587)
	3rd	9.67±2.87		11.64±3.65		8.88±3.28		11.58±4.09		8.42±3.17		9.11±3.23		59.31±14.46	
Academic record	Good	9.53±2.63	0.80	10.79±3.74	0.71	9.76±3.80	1.30	9.97±4.48	2.41	7.68±3.76	0.68	8.21±3.40	1.56	55.95±13.67	0.75
	Average	9.82±3.05	(.451)	11.46±3.65	(.492)	8.80±3.42	(.273)	11.74±5.02	(.092)	7.88±3.17	(.507)	9.00±3.41	(.212)	58.69±14.59	(.476)
	Bad	10.46±3.46		11.86±5.12		8.71±3.59		10.79±4.14		8.57±3.19		9.71±4.05		60.11±18.18	
Satisfaction of family life†	Good	9.82±2.93	0.03	11.30±3.64	0.83	9.03±3.49	0.64	11.96±5.02[a]	5.74	7.81±3.18	0.60	8.72±3.34	2.40	58.65±14.23	0.09
	Average	9.90±3.53	(.966)	11.62±4.48	(.437)	8.48±3.47	(.530)	9.72±4.09[b]	(.004)	8.33±3.37	(.551)	9.72±3.80	(.092)	57.78±17.75	(.918)
	Bad	10.00±2.96		12.57±3.80		8.57±3.52		9.86±4.62[b]	a > b	8.07±3.97		9.86±4.15		58.93±12.2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Good	9.52±2.89	2.71	10.87±3.61[a]	5.66	9.25±3.64	2.44	11.91±5.18	3.01	7.53±3.14[a]	5.30	8.43±3.34[a]	7.60	57.50±14.57	1.25
	Average	10.30±3.25	(.068)	12.22±3.96[ab]	(.004)	8.36±3.16	(.089)	10.82±4.28	(.051)	8.25±3.19[ab]	(.005)	9.63±3.41[ab]	(.001)	59.58±15.28	(.287)
	Bad	10.61±3.22		13.00±4.37[b]	a < b	8.17±2.92		9.50±4.34		9.89±3.80[b]	a < b	11.11±4.16[b]	a < b	62.28±15.27	
Average social media time (hour)†	< 3	9.48±3.11	-1.30	10.93±3.51	-1.40	8.97±3.76	0.20	11.65±6.18	0.52	7.71±3.45	-0.67	8.72±3.57	-0.78	57.46±16.05	-0.74
	≥ 3	9.98±2.97	(.194)	11.60±3.89	(.164)	8.88±3.39	(.844)	11.33±4.27	(.601)	8.00±3.17	(.502)	9.07±3.48	(.434)	58.85±14.19	(.459)

† Post-Hoc: Scheffé test.

초중고등학생의 77.1%가 SNS를 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SNS 이용동기는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였고 남학생은 게임을 여학생은 채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의 정도에서 여자 중학생들의 SNS 이용동기로는 정보획득이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이 주로 선호하는 게임 등을 포함한 오락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러한 SNS 이용동기가 개인의 개별적인 인지상태와 감정상태와 영향이 있음이 제시되었는데[22], SNS 이용동기와 인지상태, 감정상태와의 상관성을 조사한 국내 연구결과[23]에 따르면, 남성집단과 여성집단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보획득이나 게임 등의 인지상태가 우세한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 관계유지의 만족 또는 불만족 감정상태가 SNS 이용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SNS와 관련된 문제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24]에서 불만족 상태의 감정 지향성이 높은 여학생들에게서 SNS를 통한 일상생활과 현실구분장애, 금단증상 및 일탈행동 등의 문제행동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참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의 차이 결과에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여자 중학생들에게서 SNS 이용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현실회피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동기와 성별에 따른 여성의 감정상태가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서 SNS 이용시간이 많은 여학생에게서 정보획득과 오락성을 목적으로 SNS 이용동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SNS의 순기능보다는 SNS의 역기능의 위험이 높으며[22], 자기통제력의 정도가 낮아지는 선행연구결과[25]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위한 효용성이 높은 오프라인 중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는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참여자인 여자 중학생들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SNS 이용동기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은 통상적으로 8~10세경의 어린 시기에 형성되어 이후 생애에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며 감독, 인지, 처벌 등의 양유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다[29]. 자기통제 이론[18]에 따르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동기를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통제가 중요한데 내적인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and Self-control (*N*=300)

Variables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Self-control					
		X1	X2	X3	X4	Sum	X5	X6	X7	X8	X9	X10	Sum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X1	1											
	X2	.68 (<.001)	1										
	X3	.52 (<.001)	.48 (<.001)	1									
	X4	.52 (<.001)	.59 (<.001)	.66 (<.001)	1								
	Sum	.83 (<.001)	.86 (<.001)	.79 (<.001)	.80 (<.001)	1							
Self-control	X5	.27 (<.001)	.34 (<.001)	.18 (.002)	.31 (<.001)	.33 (<.001)	1						
	X6	.27 (<.001)	.36 (<.001)	.24 (<.001)	.34 (<.001)	.37 (<.001)	.67 (<.001)	1					
	X7	.16 (.004)	.12 (.043)	.13 (.025)	.11 (.069)	.16 (.007)	.31 (<.001)	.19 (.001)	1				
	X8	.09 (.120)	.01 (.885)	.12 (.036)	.13 (.024)	.10 (.098)	.24 (<.001)	.18 (.002)	.37 (<.001)	1			
	X9	.24 (<.001)	.17 (.003)	.06 (.316)	.13 (.021)	.18 (.001)	.51 (<.001)	.44 (<.001)	.30 (<.001)	.22 (<.001)	1		
	X10	.26 (<.001)	.34 (<.001)	.14 (.017)	.19 (.001)	.30 (<.001)	.47 (<.001)	.50 (<.001)	.26 (<.001)	.15 (.012)	.62 (<.001)	1	
	Sum	.31 (<.001)	.31 (<.001)	.21 (<.001)	.30 (<.001)	.34 (<.001)	.75 (<.001)	.71 (<.001)	.60 (<.001)	.59 (<.001)	.73 (<.001)	.71 (<.001)	1

X1=interpersonal relations; X2=evasion of reality; X3=acquisition of information; X4=entertainment; X5=recognition of impulsivity; X6=preference to simple task; X7=tendency to seeking adventure; X8=preference to physical activity; X9=egocentrism; X10=stroppiness.

Table 6. Factors influencing Self-control (*N*=300)

Variables	Self-control			
	B	SE	t	*p*
(Constant)	43.68	2.50	17.48	<.001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0.31	0.05	6.26	<.001
		R^2=.116, F=39.13, *p*<.001		

F (1, 299),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은 충동적이고 무신경하고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고 근시안적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중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결과[28]에서는 청소년들의 모든 비행과 범죄 경향에 자기통제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청소년 비행의 특성[18, 21]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들에게서,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여자청소년들에게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여자청소년들이 좀 더 즉흥적이면서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 연구들이[25-27]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들과 가정생활 만족정도가 낮은 학생들이 자기

중심성 경향과 화기질이 높아 자기통제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과 게임 중독 등 SNS 이용시간과 상관계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2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에서 SNS 이용시간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SNS 이용시간을 감소시키며 자기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오프라인 환경 제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SNS 이용 역기능을 예방하고 SNS 순기능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SNS 이용동기에 있어서는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여자 중학생들에게서 SNS 이용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SNS 이용동기와 낮은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일개 도시의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과 개별적인 여자중학생들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과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는 점, 여자 중학생에서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에 청소년들의 성별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간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Jung SJ, Lim K, Ko Y, Sim H, Kim K. The analysis of trend in smart applications for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improved educational us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010;11(2):203-216.
2. Lee YH. Analysis of SNS usage and key issues in Korea. Internet & Security Focus. Seoul: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4 August. Report No.:4. p.56-78.
3. Yu DH, Kim SJ. Research on military SNS protection profile for national defense.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2013;14(1):41-52. http://dx.doi.org/10.7472/jksii.2013.14.41
4. Lee ET, Lee EK.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cyber-bullying offensive conduct and testing determinants of the classe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15;12(2):111-130.
5. Notar CE, Padgett S, Roden J. Cyberbylly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3;1(1):1-9. http://dx.doi.org/10.13189/ujer.2013.010101
6. Williams SG, Godfrey AJ. What is cyberbullying & how can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es recognize it?. Journal of Psychologic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2011;49(10):36-41. http://dx.doi.org/10.3928/02793695-20110831-03
7. Hase CMN, Goldberg SB, Smith D, Stuck A, Campain J. Impacts of traditional bulling and cyberbullying on the mental health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2015;52(6):607-617. http://dx.doi.org/10.1002/pits.21841
8. Smith PK, Mahdavi J, Garvalho M, Fisher S, Russel S, Tippett N.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08;49(4):376-385.
9. Oh EJ. Cyber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dolescent Culture. 2010;15:219-243.
10. Ang RP. Adolescent cyberbullying: A review of characteristic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015;25:35-42. http://dx.doi.org/10.1016/j.avb.2015.07011
11. Agnew R. Controlling delinquency: The policy implications of general strain theory. In: H. Barlow, editors. Crime and public policy: Putting theory to work. Boulder, CO: Westview; 1995. p. 1-301.
12. Salmivalli C. Bully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010;15:112-120. http://dx.doi.org/10.1016/j.avb.2009.08.007
13. Li CKW, Holt TH, Bossler AM, David C.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learning on the low self-control: Cyberbullying relationship in an youth sample. Deviant Behavior. 2016;37(2):126-138. http://dx.doi.org/10.1080/01639625.2014.1004023
14.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175-191.
15.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9;41:1149-1160.
16. Kim JY, Shim JP, Ahn KM. Social networking service: Motivation, pleasure, and behavioral intention to use.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2011;51(4):92-101. http://dx.doi.org/10.1080/08874417.2011.11645505
17. Jeong EJ. Big 5 personality factors elated to motives for SNS usages among adolescents [master's thesis]. Busan: Shilla Uni-

versity; 2012. p. 1-45.
18. Gottfredson MR, Hirschi T. A general theory of crime. 1st ed. Redwoo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 1-316.
19. Grasmick HG, Tittle CR, Bursik RJ, Arneklev BJ.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Delinquency. 1993;30:5-29.
20. Ha CS, Kim BS. 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Korean version of the self-control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05;6(4):1175-1188.
21. Statistics Korea. 2014 Statistics on the youth [Internet]. Seoul: Author; 2014 [cied 2016 June 20].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eng/pressReleases/1/index.board?bmode=read&aSeq=328722
22. Jiang ZH, Chan J, Tan B. Effects of interactivity on website involvement and purchase inten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010;11(1):1-46.
23. Chun MH. The affective/cognitive involvement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usage motivations of social network servi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Review. 2012;31(2):21-38.
24. So HH, Han EJ.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interpersonal anxiety and self-control on messenger immers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010;28(2): 181-192.
25. Gibson C, Wright J. Low self-control and coworker delinquency. Journal of Crimal Justice. 2001;29(6):483-492.
26. Pratt TC, Tumer MG, Piquero AR. Parental socialization and community context: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sources of low self-contro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2004;41(3):397-421.
27. Winfree LT, Taylor TJ, He N, Esbensen F. Self-control and variability over time: Multivariate results using a 5-year, multisite panel of youths. Crime & Deliquency. 2006;52(2):253-286.
28. Min SH. The impacts of middles school students' self-control upon their crime and delinquency: Tests of casuality and generality claims using the KYPS panel data.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6;13(6):27-47.
29. Ki KD. An empirical study on causes of self-control.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2011;23(2):37-60.